

# 공동주관기관 대한당뇨병연합 소개



2023년 국회에서 개최된 당뇨병 법률안 상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 ◆ 대한당뇨병연합의 설립 취지(목적)

현대사회 고령화와 변화된 생활환경으로 당뇨병 환자는 다양한 계층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당뇨병 환자와 2,000만 명에 달하는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때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1형당뇨병, 2형당뇨병, 임신당뇨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노년층, 장년층은 물론이고 50만 명의 청년층과 5만여 명의 아동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과 젊은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와 그릇된 인식은 그들의 고통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극복은 환자의 일생 동안 이어지는 혈당 관리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당뇨병연합은 환자와 가족은 물론, 전문의료인, 정부 기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후원인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와 함께 하는 모든 관계자 및 후원인 여러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당뇨병연합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 대한당뇨병연합 소개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Korean Diabetes Union)은 젊은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문가와 의료진, 유관기관, 관련업체,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까지 함께 참여하는 연합체로 2015년 11월 14일 선포하였으며, 2017년 12월 26일 비영리민간단체로, 2021년 4월 20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공익기관입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식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대국민 당뇨병 홍보캠페인과 정책토론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안 및 조례안 제정,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학술대회와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년 당뇨병 환자, 임신당뇨병 환자, 체장 이식 환자 등 그동안 다루어지는 통상적인 당뇨병의 범주에서 벗어난 당뇨병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그들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제도개선 안내

2018년 제1형당뇨병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서울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시스템 조성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청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경기도, 제주도, 포천시, 양천구 등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여 소아에서 청년까지의 당뇨병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당뇨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서울시의회 제3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김호진 서울시의원을 통해 '임신 중 당뇨병 지원 제정 조례안'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젊은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국회 제4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명수 국회의원을 통해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23년 여야 보건복지위원들과 제5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상정 하였습니다.

## ◆ 청년당뇨병 및 임신당뇨병 교육 및 홍보 안내

2017년 제1회 90일간의 청춘 당당 당뇨 학교를 시작으로 청장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총 6차례의 전문교육을 주관하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 등 지방정부 및 대학병원과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서울시 공익사업기관에 선정되어 소아·청소년 및 성인 당뇨병 환자와 전문의료진이 함께 참여한 합창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인술린 100주년 기념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의 공식주관 기관으로서 정부 부처, 국회, 당뇨병 유관기관을 모두 초대하여 학술제와 시상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임신당뇨병 및 2형 당뇨병 환자까지 연속혈당측정기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 당뇨병연구발표 및 정책연구 안내

2018년~2021년까지 당뇨병연구와 인술린을 처방받은 전체인구를 해마다 발표하여, 유관기관의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년 연속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정책융역 연구기관에 선정되어 수행하였고,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교육 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자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제주대학교병원,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등과 업무협약 및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